

“열심히 일한 당신, 불서와 함께”



마음 명상, 교리 등 장르별 12選 선정 몸과 함께 마음도 힐링할 수 있는 기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몇 년전 TV광고
서 유행했던 카피문구다. 지루한 장마가 끝나
가고 이제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온다.
몸과 마음의 재충전을 위해 떠나지만 북적
이는 인파와 찌는 듯한 더위에 지치지 일수다.
또하나의 짐일 수도 있지만 휴가길에 붙서 한
권씩 쟁겨보자. 삶을 풍요롭게 하는 양서와 함
계 하는 휴가만큼 알찬 재충전의 기회도 없을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불기 시작한 힐링
열풍에 맞춰 마음 명상 관련 번역서들이 봇물
처럼 쏟아져 정신을 힐링하는데 큰 도움이 될
듯 하다. 에세이들도 휴가지서 가볍게 읽으며,
자신을 돌아보는데 좋은 안내서 역할을 할 것
같다. 여기에 열받으면 딱딱할 것 같은 수행
교리서들도 집이 아닌 탁 트인 휴가지서 다시
꺼내 읽는다면 일상에서 못냈던 불법의 진
한 향기를 새롭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교계
출판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휴가지
서 읽을만한 불서들을 장르별로 분류했다.

정리=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com

마음·명상 관련 번역서 북돋

성난 물소 놓아주기

아난 브라흐마 지음/김훈 번역 | 공감의 기쁨 펴냄 | 1만5천원

“명상은 인생의 고통을 멈추는 길”

《성난 물소 놓아주기》에서 저자는 누구나 마음에
키우고 있는 물소를 내달리게 가만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하면 얼마 가지 않아 진정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될것이기 때문
이다. 당신의 마음이 마구 들뜰 때, 그것이 꼭지가

돌아서 온갖 어리석은 짓을 다 하고 싶어 할때면, 그
냥 따뜻하고 너그럽게 마음을 보내면서 놓아보자.
인생은 고통의 여행이다. 명상은 그것을 멈추는
일이다. 우리는 삶이 순조롭게 흘러가기를 바라지만
세상사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
다. 이 책에서 아난 브라흐마는 헛된 기대감이 불러
일으키는 역풍을 버리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 자신과 다른 이들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림으
로써 타고난 고요함의 상태를 체험하고 지금 이 순
간의 열락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사라짐이
일어나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언젠간 모두 사라진다. 걱정할 필요
가 없다. 그것들이 사라질수록 우리는 참된 행복을
맞보게 된다.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

마크 네포 지음/박윤정 번역 | 흐름출판 펴냄 | 1만6천원

진정 필요한 건 조용히 내려 놓는 것

이 책은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놓친
것,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는 책이다.
저자인 마크 네포는 30년 넘게 영성과 시 분야에
서 강의를 한 철학자이자 시인이다. 그는 암을 두 번
이나 겪으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후
내면의 변화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 책이야
말로 그의 모든 정수를 담은 결실이다. 비록 그는 암
을 앓으면서 큰 고통을 받았지만, 병을 이겨내면서
그의 영혼은 활짝 깨어났고 마음을 쟁기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런 만큼 이 책은 지혜와 통찰,
순간의 끝수는 물론 시간의 빠대까지 빨아들이는 뜨
거운 열정을 가르쳐준다.
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365일 형식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루하루 한두 쪽 분량은 쉽고
간결하며, 리듬감이 있고, 오래도록 생각하게 만드
는 힘이 있다. 오프라 윈프리의 말처럼 이동 중이나
아침저녁으로 자기만의 재충전 시간에 읽으며 힐링
을 받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 같은 책이다.

명상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비산트 조시 지음/우자경 번역 | 물병자리 펴냄 | 1만2천원

현자들의 자기 변화에 대한 노하우

붓다에서 오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현자들의 자
기 변화에 관한 노하우와 마인드를 담은 책이다. 디
팩 조프라 박사의 프로그램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
계를 누비며 유엔과 세계은행, 판타곤 등을 비롯한
수많은 곳에서 전인적이고 탁월한 비전을 강의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저자.
그는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의 현실을 고려해,
개념과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전달한다. 책은 붓다,
예수, 크리슈나무르티, 카비르, 루미, 오쇼, 마하리시
등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현자들이 경험한 자
기변화의 길을 담고 있다. 또한 명상에 관한 가장 핵
심만을 쉽고 명쾌하게 정리하여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저자는 개인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닌 지혜라고 말한다. 지구 자멸의 위
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현실에서, 가장 절
실한 혁명은 지혜를 필요로 하는 영적 혁명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해력과
지력 등이 자신의 영적탐구와 깨달음의 원동력이었
다고 말했다. 이 책이 그 방법을 알려준다.

헤드스페이스

앤디퍼디컴 지음/윤성운 번역 | 불광 펴냄 | 1만5천원

“10분 명상법” 담은 자기 계발 명상서

영국에서 최초로 공인받은 명상 컨설턴트인 앤디
퍼디컴이 10여 년간의 승려 생활을 바탕으로 완성한
‘10분 명상법’을 담은 자기 계발 명상서다.
저자가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물론, 훌륭한
스승들에게서 전수받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
기가 가득해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또 책 중간 중간
저자가 제시해 놓은 10가지 ‘명상 연습’을 따라 하
다 보면 자연스럽게 명상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을 보게 될 것이다.

책 뒷부분에는 10일간 직접 명상을 하면서 기록
할 수 있는 ‘명상 다이어리’가 실려 있어, 10일간의
체험을 통해 명상의 효용을 느껴 볼 기회를 직접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마음 수행 3단
계(명상에 대한 접근하기, 명상 수행하기, 명상을 삶
과 통합하기)를 제시하면서 알아차림(mindfulness)
명상 기법을 활용해 어떻게 요란한 마음을 고요하
게 잠재우는지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스님들이 펴낸 에세이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스님 지음 | 정토출판 펴냄 | 9천원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법문 정리

“남편이 뭐라고 하면 ‘아, 나도 좀 문제네요’ 하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변
명하려고 합니다. 무슨 수를 내서라도 변명을 하면
서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하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별 것
아닙니다. 인정한다고 내가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
다. 단지 그 때 한 생각일 뿐입니다.”

정토회 설립자이자 지도법사로 정토행자들의 수
행을 지도하는 법륜 스님이 공개하는 ‘잘 사는’ 방
법에 대한 지침서.

일상에서 마주하는 괴로움과 고통을 돌파하고,
‘잘 사는’ 것의 본질은 우리 마음에 있음을 이야기
한다. 하지만 그 마음은 구체적인 현실을 파악한
후 선택하는 지혜이다.

책은 질의응답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과의
분화, 직장 상사에 대한 미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
관 등 우리 삶 속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고통과 괴로움, 불편함에 대해, 채우려는
생각을 일단 버리라고 지시하는 법륜 스님은 느긋한
마음과 여유의 지혜로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소
개한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 스님 지음 | 쌤엔 퍼커스 펴냄 | 1만4천원

“잠시 멈추고 내 자신을 사랑하자”

출간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베스트셀
러로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서다. 하버
드 재학 중 출가해 한국인 승려 최초로 미국 대학교
수가 된 헤민 스님은, 이 바쁜 세상에서 잠시 멈추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권한다. 관계에 대
해, 사랑에 대해, 마음과 인생에 대해, 머리로는 알지
만 마음으론 잘 안 되는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의 조언은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한 점의 보약과도 같다.

스님은 결국 ‘내 마음이 문제다’ 라고 말한다. 세
상이 바쁜 것은 사실 내 마음이 바빠서 때문이다. 내
마음이 쉬면 세상도 쉬고, 내 마음이 행복하면 세상
도 행복하다. 내가 세상에 대해 느끼는 좋고, 싫고,
힘들고, 괴로운 감정들의 원인은 이미 내 안에 언젠
가 내가 심어놓았다는 것이다. 내 마음은 세상에 어
떤 대담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대답 따위 할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무작정 달려오지는 않았는지, 마음
이 힘들고 위로 받고 싶은 당신이라면 헤민 스님의
마음 매뉴얼을 펼치고 한 숨 쉬었다 가보자.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스님 지음 | 쌤엔 퍼커스 펴냄 | 1만4천원

힐링 전법사 정목 스님의 명상 언어

“아침에 일어나면 잔디에 물을 주거나, 작은 화분
에 담긴 꽃에게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열어보세
요. 작은 생명에게 사랑의 물을 주며 시작하는 하루
는 온종일 우리에게 복이 마라톤처럼 이어지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끼우는 강아
지나 고양이 있다면 그 생명에게 가장 먼저 눈을
맞추고 잘 잤냐고 인사 하며 ‘내가 눈을 떴을 때 네
가 곁에 있어 기분 좋아’ 라고 말해보세요. 사랑받은
생명은 더 큰 사람으로 보답합니다.”

(주)에스큐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직항 “초특가”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출발일 : 2013년 8월 24일, 8월 31일 (단, 2회 출발)
- 양곤 / 바고 / 시리암 - 5일
출발일 : 2013년 8월 28일
- 마하연 실속 팩 상품
양곤 / 바고 / 시리암 - 5일 (4인 이상 출발가능)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 7일 요금문의
- 김해공항 타이항공 - 베트남 항공 출발
양곤 / 바간 /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태국 파타야 - 7일 요금문의

해의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본사 : 서울시 중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헤거 두손모음
해외지사 : 양곤 사무실 (가바이파고다 앞) / 전화 951-667170, HP 95943048476

세계속의 성지순례

- 스리랑카 핵심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와 몰디브 해변 휴양 8일 요금문의
- 베트남 / 캄보디아 6일 요금문의
- 민족의 백두산 5일 요금문의
- 용문석굴과 중국불교의 중심 소림사 5일 요금문의
- 몽고 테를지 울란바토르 5일 요금문의

마하-연 여행사가 추천하는 품격 성지순례

-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 139만원
-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4일 9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4일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 / 석가장) 5일 11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 / 낙산) 5일 119만원
- 대만 5일 119만원
- 라오스 (직항) 6일 139만원
- 스리랑카 (직항) 6일 199만원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 전문가이드동행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종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차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여행자보험가입

“본지 선정 장르별 12選과 함께”



『힐링의 어머니』 정목 스님은 분노, 욕망, 관계, 두려움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대인들을 위한 명상의 언어를 펼쳐놓았다. 화를 다스리는 법, 고통을 바라보는 법, 관계 속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찾는 길을 잔잔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갈한 언어로 표현했다. 마음에 맞는 아픔과 번뇌를 내려놓게 하는 정목 스님의 아름다운 성찰의 말씀은 삶에 지친 현대인을 누구에게라도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향기로운 에너지를 전달할 것이다.

수행 고리서

불교가 좋다
가오이 하야오, 나카자와 신이치 지음 | 김옥희 번역
동아시아 펴냄 | 1인2천원

“불교는 모든 종교의 출발점이다”

“존재 자체, 이것을 신이라고 부르며 이름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인류를 첫 번째 형이상학 혁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과학이 탄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 2차 형이상학 혁명입니다. 그리고 제 3차 형이상학 혁명이라는 것이 도래한다면, 그것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은 아마 불교일 거라고 생각해요. 불교는 근 대과학과 일인교, 이 둘의 한계를 초월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 용학과의 선구자인 현 문화청 장관 가오이 하야오, 종교학과 철학을 넘나드는 전방위 사상가로 일본 제일의 인문학자로 꼽히는 나카자와 신이치, 각자의 자리에서 학문적 업적을 쌓아가던 두 사람이 ‘불교’라는 화두를 두고 마주 앉았다.

2004년 출간되었던 것을 표지와 편집을 바꿔 재출간했다. 종교로서의 불교를 넘어서 인문학자의 관점에서 종교사, 철학, 신화와 과학, 심리학에서 상당론까지를 포괄하며 메타종교로서의 불교를 이야기 한다. 두 저자는 불교가 아시

아인의 무의식 깊은 곳, ‘야생의 사고’ 서 비롯됐다고 하며 그 옛날 사상의 기원에 맞닿아 온 전통 종교인 불교가 모든 종교의 출발점이자 도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보경 지음 | 민족사 펴냄 | 1인5천원

최초의 불교경전 이해하기 쉽게 해설

오늘날과 같은 불안한 시대에 한 권의 책을 고르라면 최초의 불교경전인 <숫타니파타>를 꼽을 수 있다. 이 책은 세상의 온갖 문제에 대해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불교 교단이 성립되기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구도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자상하게 답변해 준, 시와 이야기로 이루어진 짧은 경전들의 모음이다. 난해한 불교 용어가 아닌, 매우 소박하고 쉬운 일상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 종교를 넘어 모두의 가슴에 깊이 와 닿는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다. 우리 시대의 정신적 스승인 법정 스님이 <숫타니파타>를 번역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법정 스님의 손상좌로서 법정 스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보경 스님이 본격적으로 해설했다는 점에서 인연법의 지중함을 느껴며 마음으로 읽게 되는 책이다. 쉽고 자세한 해설이 책장을 술술 넘기게 만든다.

부처님의 생애
조계종 교육원 편찬원 지음 | 조계종 출판사 펴냄
1인2천원

부처님 일생에 관한 모든 것 답아

불교신도에게나 일반인에게나 부다는 인류의 스승이고 성현이다. 그는 스스로 깨닫는 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집착이나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설교했다. 그래서 4대 성인으로 당당히 부다는 꼽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부다는의 삶을 소개한다. 부다는의 삶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다. 탄생에서 성장, 구도와 설법 그리고 열반에 이르는 과정은 그 어떤 인간의 인생보다 드라마틱하다고 할 수 있다. 책은 총 10장으로 단계를 세분화하여 부다는의 삶을 그리고 있다. 방대한 분량에 독자가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이미지를 삽입한 것도 특징이다.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공 학자가 참여하여 한문 불전은 물론 빠알리본과 산스크리트본까지 참조하여 부다는의 삶을 재구성했다. 또한 부다는의 연표와 부다는의 가계도를 부록으로 정리하여 독자들이 부다는의 삶을 쉽게 이해하도록 배려했다. 이로써 불자이든 불자가 아니든, 누구나 쉽게 부다는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찰기행서

조용헌의 사찰기행
조용헌 지음 | 이가서 펴냄 | 1인8천원

18년간 답사한 사찰 22곳 속살

저자가 지난 18년 동안 다녔던 우리나라의 산과 사찰 중 22곳을 소개한다. 소개된 22개의 사찰에는 천문(天文), 지리(地理), 인사(人事) 즉 삼재(三才)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에서 최초로 사주명리학을 강의하며 강호동양학의 개척을 꿈꾸는 저자 특유의 시선이 담겨져 있어, 여느 여행 정보에서도 얻을 수 없는 맛깔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서문에서 밝힌 사찰에 대한 ‘내부의 시각’이다.

내부의 시각이란 천년이 넘게 이 땅에서 절을 다니던 우리 조상들이 보던 시각이다. 절에는 수천 년이 넘게 이어져 오던 우리 조상들의 민속 신앙이 숨어 있다. 산신이 있고 칠성이 있

고, 용왕이 있다.

저자는 이것들을 사찰의 좌향(坐向)과 주위의 산과 마을과의 어울림, 근처 물줄기의 방향, 임구의 트임과 설치된 기물 등 사찰의 지리(地理)를 풀어놓으면서 시작한다. 거기에는 천년이 넘는 고찰마다 담겨 있는 독특한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

지금은 터만 남고 그 모습은 유실되어버린 사찰까지 언급한 것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 사찰에 대한 지리(地理)뿐 아니라 천문(天文)까지도 밝힌 것이다.

하늘이 감춘 땅
조현 지음 | 한겨레출판 펴냄 | 1인4천원

오지 암자 29곳과 산승들 소개

한겨레 종교/명상 전문가이자 거의 1년간 취재해서 풀어놓는 대한민국의 오지 암자 기행서이다. 묘향대와 상주암을 비롯한 지리산 자락의 여러 암자들, 화려한 기암절벽에 둘러싸인 달마산 미항사의 도솔암, 300여 명 비구니들의 정갈한 운문사, 두만강 너머의 일광산 범바위까지, 천상의 영역인 듯 속세로부터 슬쩍 비껴난 암자 29곳과 그곳에 사는 산승들의 모습을 사진과 글로 담았다.

오랫동안 전 세계의 생태·공동체 마을을 찾아다니고, 히말라야와 인도 오지를 순례하며 세계적인 명성가들을 만나온 저자에게, 이번 오지 암자 순례기는 “세인의 출입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산승들과의 만남”이어서 더욱 특별하다.

길 없는 길을 찾아, 때론 금지선을 넘어 찾아간 심산(深山)의 수도승들은 전광석화와 같은 선담으로 깨달음이라는 선물을 선사한다. 속세의 발길이 딱 끊긴 산속 암자에서 수십 년간 독살이와 묵언수행을 해온 은둔자들의 저 깊은 눈은, 눈앞의 사리사욕을 쫓으며 애달파하는 세인의 등을 시원하게 내리치는 죽비와 같다.

상반기 베스트셀러 30권도 휴가지 도서목록에 ‘찜’ OK

불교계 최대 서점인 ‘조계종 불교전문서점’이 올해 1월 1일부터 판매한 상반기 자료를 집계해 ‘2013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30’도 휴가지서 읽을만한 도서목록에 ‘찜’해도 유익할 것 같다. 그만큼 독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혹시 이들 중 읽지 않은 것이 있다면 챙겨서 휴가지에 갖고 갈만하다.

우선 1위는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선정됐으며 2위에는 법륜 스님의 <기도>, 3위는 불필 스님의 <영원에서 영원으로>가 집계됐다.

4위에는 정목 스님의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가 장식했으나 절판됐다. 5위는 월호 스님이 3월 펴낸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가 위치했다.

이밖에 지난 5월 방한한 틱낫한 스님의 저서 내권이 3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틱낫한 명상>(불광), <화>(명진 출판), <틱낫한 스님의 금강경>(장경각), <오늘도 두려움 없이>(김영사) 등이다.

조계종 불교전문서점 선정

순위	도서명	출판사	저자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생앤파크스	혜민스님
2	기도-내려놓기	정도	법륜
3	영원에서 영원으로	김영사	불필스님
4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공감	정목스님
5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숲	월호
6	틱낫한 명상	불광출판사	틱낫한,이현주
7	화-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개정판,정가인)	명진출판	틱낫한
8	젊은날의 깨달음-하버드에서의출가그후10년	클리어마인드	혜민스님
9	스님의 주례사(행복한결혼생활을 위한남녀이야기10+)	휴(한겨레출판)	법륜/김점선
10	미국 부처님은 몇 살입니까?	아름다운인연(조계종출판사)	명법스님
11	봄바람에 피지 않는 꽃이 있오라	불광출판사	지유스님 외 17명
12	선방일기(개정)	불광출판사	지허스님
13	광명진인 기도법	효림	일타,김현준 공저
14	무비 스님 신금강경 강의	불광출판사	무비스님
15	틱낫한 스님의 금강경	장경각	틱낫한/양미성
16	행복편지 365일	조계종출판사	법상 글 임호 그림
17	치유하는 불교 읽기	불광출판사	서광스님
18	행복 119	(주)셀프컬처서치	서대산인성당
19	오늘은 내 기쁜 생의 첫날(탁상달력)	공감	정목스님
20	경전송길	조계종출판사	정운
21	지관수행(수습자전환선법요강의)	비움과소통	천태지의/ 동현승찬우
22	오늘도 두려움없이-삶의폭풍우를통과하는지혜	김영사	틱낫한/ 진우기
23	열두 달 절집법상	웅진리빙하우스	대안스님
24	공부하다 죽어라(혜암스님의벼락같은화두)	열림원(오래된미래)	정찬주
25	달은 마음 밝은 마음(개정증보판)	용화	김재웅 글 존 카밧진/ 인희영
26	존카밧진의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명상	불광출판사	아잔 브라흐마
27	성난 물소 놓아주기	공감의기쁨	서암스님
28	그건 내 부처가 아니다	정도	법륜스님
29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개정판,양정본)	정도	법륜스님
30	세상의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민족사	파담빠상계/ 린포체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측정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흔을 담아야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재주 부리면 끝이야! 끝!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 전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ong.com / E-MAIL : sungjongsong@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유형문화재 제 112호 · 대한민국 명장)